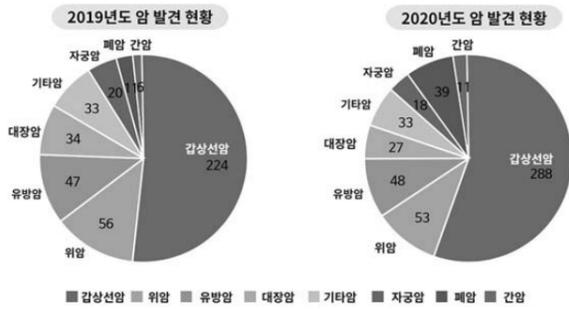


지난해 도민 암 발병률 20% 증가

건협 전북지부, 김진통해 총 517건 발견...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갑상선암' 폐암 발생률도 전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



(그래픽=건강관리협회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통해 517건의 암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건협 전북지부가 2020년도 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대비 암 발견율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288명)이었고 이어 위암(53명), 유방암(48명), 폐암(39명), 대장암(27명), 자궁암(18명) 등의 순이었다. 2019년 암 발생률과 비교하

면 갑상선암은 4%, 폐암은 5% 증가했고 대장암은 2.6%, 자궁암은 1.2% 감소했다.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폐암 발생률 또한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률 1위(2019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

하고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 특히 여성에서 비흡연 폐암이 늘고 있다. 남녀 비흡연 폐암환자는 전체 폐암 환자의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흡연 여성은 전체 여성 폐암 환자의 87.5%나 됐다. 폐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흡연 외에도 미세

먼지, 호르몬, 중금속 노출, 가사노동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 폐암의 가족력을 가진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폐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북지부는 설명했다.

건협 전북지부 배기웅 본부장은 "비흡연자의 경우 폐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도 평소 폐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전북지부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흡수년도 출생자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대상들은 검진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를 비롯한 종합검진, 맞춤형건강검진, 채용신체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올해, 모두 부자되소'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디지털 상품가입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이번달 31일까지 디지털 금융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모두 부자되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NH스마트뱅크 또는 올원뱅크에서 NH페이모아

통장, NH포디에금II, 올원5년도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1종 이상 상품을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231명을 추첨해 골드바 10봉(1명), 농촌사랑상품권 50만원(10명), 한우선물세트 30만원(20명), 스타벅스 디지털 모바일 쿠폰

(2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장기요 본부장은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감동 주는 고객중심의 디지털 금융 선도은행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스마트뱅크, 올원뱅크 이벤트 페이지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고객행복센터(☎1600-28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국가유공자 등에 30%'

LX,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정부정책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제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기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문의·접수는 공사 대표전화(1588-7704)로 연락하거나 각 지치단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 또는 인터넷(bar.lx.or.kr)으로도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겨울 토마토 시설, 밤 기온 15℃ 이상 유지를

농진청, 올겨울 한파 대비 15도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자라는 속도 늦어져 생산량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겨울 한파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도와 습도 등 저온기 토마토 재배 환경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18일 당부했다.

토마토는 고온성 채소로 생육에 필요한 최저 온도(15도 이상)가 유지되지 않으면, 꽃이 떨어지기 쉽고 열매 색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자라는 속도가 늦어져 생산량이 줄어든다.

연구진이 토마토 25지위를 아주심기하고 한 달 뒤부터 밤중 최저 온도를 15도보다 낮은 10도로 관리한 결과, 2~5화방에서 꽃이 핀 뒤 열매가 달리는 비율(착과율)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1월부터 다음 해 이른 봄까지 토마토를 재배(추상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밤에 시설 내부 온도가 1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난방을 오래 하면 습도가 낮아져 꽃이 피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



시설토마토농장 내부 모습.

으므로 부지포나 보온 덮개 등으로 이랑 사이를 덮어 알맞은 습도(70~80%)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등 곰팡이병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잿빛곰팡이병은 잎 끝이나 가지저리에 갈색 병반(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해 잎 안쪽 부위로 점차 번지면서 브이(V)자 모양으로 크기가 커진다. 병의 증세가 심해지면 병 발생 부위에 회색빛 곰팡이 포자가 생긴다. 잎마름병은 잎,

줄기, 열매에 생기는 갈색 병반이 뜨거운 물에 데친 형태로 나타난다.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병 발생 부위에 곰팡이 포자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많이 만들어져 빠르게 퍼진다. 곰팡이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병든 부위를 바로 제거해 재배지 내 전염원 밀도를 낮춘다. 약제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맞게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농사백과-농자재-농약-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한 뒤 사용한다. /김윤상 기자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법정구속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8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은행 이 사건 범법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방지됐을 것이 고, 피고인들도 이 범행에 서는 일이



없었는지 모른다"면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같은 결단도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조건인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위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율러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